

# 개회식 광주정신·폐회식 남도문화에 초점

## 광주세계수영대회 운영섭 총감독 개·폐회식 주제·개요 공개

올 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은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특히, 전세계의 물이 민주평화의 정신을 품은 광주에서 하나의 물결로 솟아나는 이벤트를 하는 등 볼거리도 풍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운영섭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는 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폐회식 스토리는 평화의 빛으로 치유된 세계의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개회식은 민주평화를 품은 광주정신, 폐회식은 남도 문화를 주제로 꾸며진다. 운영섭 감독은 "지구의 생명과 인류문명을 품은 '물'을 주제로, 광주의 평화 정신과 남도의 문화예술을 담고자 했다"며 "광주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평화 성지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중심지인 광주의 이미지를 더욱 널리 알리고

주제 '빛의 분수' '아름다운 순환' 미래 향한 생명과 평화 메시지 물·빛 어우러진 세계인 축제로 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회식 주제는 '빛의 분수'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빛'은 광주를 상징한다.

오는 7월 12일 오후 8시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의 카운트다운은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시작한다. 광주의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져온 물을 분수대에 붓자 하나가 된 물이 높이 솟구쳐 오른다. 5·18민주광장과 개회식장의 공간을 이원으로 연계해 분수에 모인 물이 개회식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또 남도 민요와 춤, 물과 빛의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생명의 경이로운 모습과 문명

의 흥망을 표현한다. 여기에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함께 어우러진다.

개회식이 펼쳐지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돐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실내공간이다. 광주와 남도의 수많은 문화자산, 입체적인 영상과 플라잉 등 특수효과로 '물'의 신비함과 자유로움, '빛'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연출할 계획이다.

7월 28일 오후 8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폐회식의 주제는 '아름다운 순환'으로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물을 삶의 속성에 빗대었다. 아름다운 남도의 계절미와 인간의 생애 주기를 절묘하게 결합해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한다. 폐회식의 전체 스토리는 '남도의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 새봄'이 펼쳐지면서 완성되는 삶의 아름다운 순환을 노래하는 어느 소리꾼의 여정이다.

이 여정의 몰입감과 극적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폐회식이 펼쳐지는 ACC 예술극장은 정철의 '성산별곡' 속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악과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 등을 통해 남도의 풍경과 남도 특유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하며 광주시민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유니버시아드 극으로 연출된다.

운영섭 감독은 "개·폐회식의 중요한 키워드는 인류 보편적인 소재로서의 물,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으로서의 빛, 남도의 문화예술 등 3가지다"며 "시민참여방식은 시민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대단히 큰 유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섭 감독은 2002월드컵 전야제-스페인 사라고사엑스포 한국관·2012여수엑스포 해상쇼 등 국제행사를 연출하고, 백상예술대상-청룡영화상 기술상, 한국뮤지컬 대상 무대미술상 등을 받았다.

개회식 연출을 맡은 윤기철 감독은 광복 70주년 경축 전야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멀티미디어 등을 연출했고 폐회식 연출을 담당한 김태욱 감독은 2018평창문화올림픽 총감독,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등을 총연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음식 공모전 작품 6편 우수작 선정

광주시는 5일 "광주음식 공모전"에 응모한 스토리 작품 중 6편을 광주음식 스토리 우수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부터 40일간 실시한 이번 광주음식 공모전은 광주의 대표 음식을 추천하는 지정공모와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광주음식 추천 지정 공모에 광주시민 1460명과 타 지역민 2026명 등 3486명이 참여했으며, 스토리 분야에서 378편이 접수됐다. 특히 스토리작품은 심사를 거쳐 '주먹밥', '상추튀김', '오리랑', '떡갈비', '팔각' 등을 주제로 한 6개 작품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들 6개 작품에 대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등을 수여할 예

정이다.

광주음식 추천 지정 공모에서는 전체 응모자의 22.2%가 한정식을 추천했다. 이어 상추튀김(16.4%), 떡갈비(14.4%), 육전(8.5%), 오리랑(6.5%)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는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전 추천 음식 사유별 키워드 분석과 스토리 우수작 음식 등을 반영한 광주대표음식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주대표음식 후보를 정하고 4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G-FOOD 오디션'을 거쳐 광주 대표음식을 최종 선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한시 확대

전남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46만원 이하), 일반재산 중소도시 1억 1800만원(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전남도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보다 안화됐다.

특히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가 금융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유가족) 등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 위기 사유로 인정해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19만4000원), 주거 지원(4인 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2000원, 농어촌 24만3000원), 의료 지원(300만원 이내),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1월 1704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같은 완화조치로 사업 수혜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 세계적 수준 평양교예단 공연 개회식서 볼 수 있을까 北에 참가 공식 요청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북한 교예단과 예술단이 특별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교예단과 예술단의 공연이 성사되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도 확정되면 대회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운영섭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는 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

혔다.

운영섭 감독은 "북한 참가가 이뤄지면 사전행사가 풍부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평양교예단이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회식이 열리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전장 시설이 잘 돼 있어 플라잉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공연장이다"며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는 평양교예단에는 플라잉 퍼포머가 있어, 참가가 이뤄진다면 여태까지 보지 못한 북한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교류가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면 남북평화음악제 등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세계수영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수영대회 북한 선수단 및 문화·예술단 참가 요청 서한문'을 가결했다. 이 서한문에는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등에서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하고 단일팀을 이루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북한 교예단 공연, 남북평화 음악제 개최, 남북 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협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전당 'ACT 쇼케이스' 가상현실 체험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상반기 ACT 쇼케이스' 개막을 하루 앞두고 프레스 투어가 열린 가운데 문화창조원 북관1관에서 관계자가 'WTC(Walk Through Cinema) 프로젝트에 나오는 영상을 휴대폰에 담고 있다. 관람객들은 스크린에 상영되는 내셔널지오그래픽사의 다큐멘터리 'COSMOS'를 보며 시공간을 넘어서는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

## 전남도 선관위원장 최인규 광주교법 수석부장관사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 열어 제32대 위원장에 최인규(사진) 광주교법 수석부장관사를 선출했다.

최인규 위원장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즈음해 조합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돈 선거 근절' 등 준법 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남 출신인 신임 최 위원장은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대전교법 부장판사·광주교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광주교법 수석부장관사로 재직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일섭 호남대 교수 내정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신일섭(63) 호남대 교수가 내정됐다.

광주시는 4일 복지재단에서 추천한 2명 중 신 교수를 내정하고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신 내정자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행정대학원장, 산업경영대학원

장 등을 지냈다.

광주복지재단은 시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 체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